

세밀화로 그린 '나무 백과사전'

보리, 《나무도감》 펴내

보리가 <세밀화로 그린 어린이 도감> 제1권으로 《나무도감》(도토리 기획, 이제호 외 그림)을 펴냈다. 이 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120종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관련 세밀화 425점을 실은, 일종의 '나무 백과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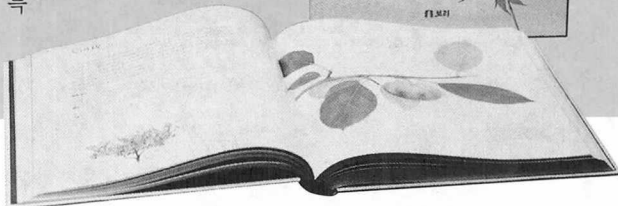
전체 3부로 꾸몄는데, 1부 <우리 겨레와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 나무들이 철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나무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기르는데 대해 설명했다. 2부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는 이 책의 '눈'에 해당한다. 120종의 나무를 가나다 순으로 실고 각 나무의 특징과 쓰임새, 그리고 나무의 실제 모습을 세밀화로 보여준다. 나무의 특징에 관한 해설부분은 각별히 어린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나무 이름의 경우 북한말도 올렸다. 더불어 나무 온그루와 줄기 생김새, 그리고 잎, 꽃, 열매의 생김새를 세밀화와 함께 설명했다.

품이 많이 드는데도 세밀화를 고집하는 것은 사진보다 실물확인이 쉽다는 점에 있다. 이 책은 이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공을 들였다. 각 나무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무 온그루의 여름 모습과 겨울 모습을 실었다. 나무에 따라 꽃이나 열매 등의 세밀화를 별도로 실은 점도 돋보인

다. 3부 <나무의 생김새>는 나무 줄기, 잎, 꽃, 열매의 생김새를 설명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정교한 세밀화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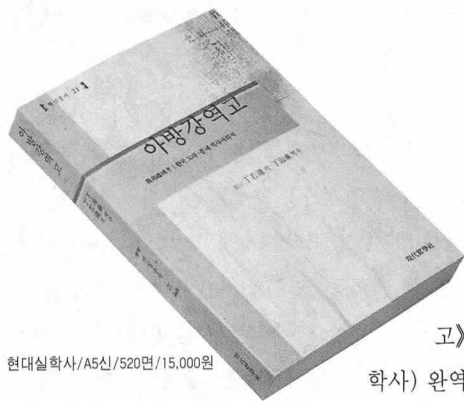
전문화가 두명이 작업을 맡았는데, 실물확인에 유리하다는 실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진중심의 도감과 확실히 구분되는 운치가 있다. 어린이들을 주 독자로 삼은 도감답게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쓴 점도 이 책의 미덕이다. 서울대 임경빈 명예교수, 서울대 김준호 명예교수, 그리고 기획을 맡은 도토리가 집필에 참여했다. 부록으로 분류찾아보기, 학명 찾아보기, 우리 이름 찾아보기 등이 있어 다른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이권우 기자



보리/B5변형/320면/50,000원

자주적 사관으로 정리한 최초의 역사지리지

현대실학사, 《아방강역고》 완역본 펴내



현대실학사/A5신/520면/15,000원

우리나라 고대·중세 역사지리를 최초로 종합 정리한 《아방강역고》(정약용, 정해립, 현대실학사) 완역본이 나왔다. 이 책은 조

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저서로 12권 4책으로 구성됐으며, 강목체로 기술됐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투철한 실증정신을 바탕으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잘못 기록됐거나 빠뜨린 사실을 바로잡고 보충했다. 특히 《삼국사기》가 빠뜨린 가야사와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우리의 고대사를 유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평가한 역사서다. 또한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중심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김부식이 추가한 자료 또한 다분히 신라측에 한정됐다.

정약용의 《아방강역고》가 더욱 빛을 발하는 대목은 김부식이 누락

한 <가라고(별진별고)>와 <발해고>를 자주적인 사관으로 정리한 점이다. <가라고>에 따르면 정약용은 "진한(辰韓)과 변진(弁辰)이 처음에는 모두 여섯 나라였다가 나중에 각각 열두 나라가 됐는데, 가라(伽羅)는 여섯 나라뿐이니 이는 역사가들이 그 여섯을 놓쳐버린 것이다"고 밝힌다. 이는 신라사를 기술하면서 마땅히 넣어야 할 <가라본기>를 기록하지 않은 김부식을 질책한 것이다. 또한 <발해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리서에서 발해라는 말은 전혀 없고 다만 함주가 오랫동안 여진에게 점령되었다"고 서술한 <고려사>의 소무함을 갈파한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조선고> <사군총고> 등 30여 가지 주제를 실증적으로 다뤘다. 특히 <강역고(疆域考)>란 이름에 걸맞게 팔도의 지리는 따로 팔도연혁이란 항목을 뒤서 살폈다. 권말에는 《아방강역고》에 나오는 인물 526명과 인용한 서명 68종에 대한 해설을 달고, 지명과 인명, 서명, 기타 역사 용어 4천여 항목의 색인을 뽑아 정리했다. 독자의 편의를 배려한 역주가의 노력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박옥순 기자